

2013년 10월 28일

## 참된 교회와 설교 (참교추 컨퍼런스)

제임스 패커는 자신의 인생과 사역에서 가장 영향을 준 인물을 꼽는다면 주저함 없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꼽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는 지금껏 그런 설교를 들어 본적이 없네 (I never heard such preaching)' 내가 그의 설교를 들을 때,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라고 말하며 이어서 '나는 설교 강단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보았다'라고 그 때의 감격을 증언합니다.

그의 고백이 설교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의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학과 같은 학술적 접근을 하고자 여기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드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도구인지를 말할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1) 설교는 하늘의 신비를 드러내는 일차적 수단이라는 것과 둘째로 2) 설교를 통해 드러낼 그 하늘의 신비가 무엇인지? 그 주체를 설명하고... 세째로 3) 그 하늘의 신비가 드러날 때 나타나는 능력만이 참된 신자와 교회를 양산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개 하겠습니다.

### 설교는 하늘의 신비를 드러내는 일차적 수단이다.

사람들 내면안에 영적인 생명을 태동케하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일들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끄시는데 사용하시는 일차적인 도구가 무엇인가? 라는 할 때, 그 질문의 답 '바로 설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설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그 일들을 발생하게 하는 근간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전략적 도구 정도가 아닙니다. 설교는 단순히 지친 심령을 위로해 주고, 그들의 삶의 유용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 감흥 정도를 일으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설교는 이러한 것들보다 위대합니다. 설교는 오직 설교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의 말을 빌리자면,

- 존 파이퍼 - 설교는 성경 본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당신의 백성(택한 백성)들에게 거침없이 폭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의 1 차적인 수단으로 설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의 출현(appear)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 삼상 3: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God appear at silo again by the word of God'

영적 암흑을 뚫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렇게 설교는 '성경 본문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영혼들 '와우'하면서... 놀라고... 그들 안에 성령께서 신비한 일들을 일으키게 하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하기에 만약 설교가 타락한다면, 이 설교의 기능이 굴절된다면, 이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초래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지금의 저주스러운 세계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불안과 초조와 굶주림으로 살아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결과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결과 사라질 것들에 눈 멀어서 그것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리하기에 설교가 타락한다면, 그리고 설교가 설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대적 비극입니다.**

## 설교자의 문제

불행하게도... 오늘날 복음의 결핍된 설교자들로 인해 어느 시대보다 설교 강단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심각성은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 상황보다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교회 정치제도나, 부조리나** 교회의 도덕적 타락이 아니었습니다. 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것은 진리 회복, 엄밀히 말해서는 강단의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로 잠자고 있는 교회를 오직 진리로 깨워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들이 주장하는 개혁은 사회가 원하는 교회, 바른 정치, 청렴한 재정 관리... 정도입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개혁은 진리회복, 강단의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새 설교 강단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에서 변질되어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노랫소리'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교는 그저** 자신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자신들의 가치 팽창을 도와주는 응원 소리로 여깁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이런 고객(?)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마케팅 전략가로 전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고 동시에 심령을 후벼파고 드는 설교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다.** 심장과 폐부를 가르는 칼날이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더 이상 심령 골수를 쪼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죄된 본성에 하나님의 진리를 투하하여 더 이상은 죄가 맥을 못추도록 하는 날카로움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심을 목표로 하는 옛 설교-

지옥으로 달려가는 회중들을 가로막고 육탄으로 그것을 저지하는 강단의 외침은 옛 이야기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불행한 시대에서 '참된 회심자' '죄의 무게에 절망하는 성도들의 외침' '자신이 무능력과 불가능함을 절규하는 회개' '구원의 무게감과 구원의 가치를 찬양하는 성도'들은 찾기가 힘듭니다.

바울은 딤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엘렌코) 경계하며(에피티마오) 권하라(파라칼레오) '

설교를 하는 것을... 모두다 (엘랑코, 에피티마오, 파라칼레오) 책망하다, 비난하도, 야단치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교를 소개합니다. 설교는 죄인들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며...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그것을 야단치듯해야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설교는 곧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며, 사람들이 지옥에서 구원을 돌이키라고 외치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찾아 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이렇게 설교하면 교회성장에 걸림이 된다고까지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 왜 설교강단이 이렇게 타락되었을까?

그렇다면 왜 설교강단이 타락했을까요? 이것을 답을 리차드 백스터가 말합니다.

- 거듭나지 않는 미숙한 목사들,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전에 설교자가 된 사람들이 교회에 그렇게 많은 것은 참으로 위험이요 재난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마음으로 드려 제자가 되기도 전에 제단을 위해서 구별되며, 그 결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성령, 거룩과 하나님과의 교통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 알지 못하는 영광을 전파하다가 결국 영원히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상태로 떨어질 것이다. 그는 무정한 설교자이며 그가 전파하는 그리스도와 은혜가 그 자신의 마음속에는 없는 사람이다.

강단의 타락은 바로 '회심하지 않는 설교자'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설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대한 인식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자가 어찌 죄의 심각성을 설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심령들의 내면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크기를 어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찰스 브리지스는 '참된 목회자'에서

- 죄를 각성시키는 일에 우리 자신의 죄성에 대한 경험적 인식 이외에 죄의 추함과 거짓됨을 더 잘 폭로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정죄하고 죽이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놀라운 넓이와 영성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 때 하나님은 회심하지 않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 예레미야 23:16, 1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회심하지 않는 설교자의 문제는 오늘날 설교 강단의 타락의 원인이며, 그들이 전하는 것으로 거짓 신자들이 양산되고 있고 (즉,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을 구원받은 자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거짓된 확신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충만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가치추구의 집단으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 설교가 제공하는 근간이란?

다시 설교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16 세기 영국 국교회 신학자 리차드 후커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이 인간사의 모든 죄악의 원인이듯이 반대로 우리 행복의 근거와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완전한 덕성의 씨앗은 하나님의 일에 관해 바른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지식을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이 지식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으로부터 이 지식을 받는 의무를 지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종교적 직책 중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영생에 이루도록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원하는 진리를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늘의 신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이 일을 표시하는 위대한 용어가 바로, 설교다.**

설교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늘의 신비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다. 라고 그는 정의합니다.

### 설교를 통해 드러나야 할 하늘의 신비가 무엇인가?

설교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는 리차드 후커가 말한 '하늘의 신비를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늘의 신비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그들 내면에 어떤 일을 발생케 하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3 장 천국비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 제자들의 의문

예수께서 천국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 설교하십니다. 그 비유의 설교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 마 13: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다.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을 쉽게 설명하시면 더 좋을 텐데 굳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더 못알아 듣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비유란,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표면상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말이라는 의미이다.** 겉으론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일 뿐인데... 그 이야기 속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리가 이야기속에 은닉 되어 있는 것을 '파라볼레-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왜 은닉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1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 11 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첫 번째 목적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에게 그 비밀을 숨기시고자 하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먼저, 천국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란 누구인가? 저희란?**
  - 길가처럼, 세상의 경험과 자신의 가치관으로 그 마음이 가득차 있어서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
  - 그리고 돌밭처럼, 복음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저희'이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그저 지식적인 것으로만 여기고, 복음의 행함을 계산해 놓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시험이 닦쳤을 때,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다.
  - 그리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써,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 세 가지 밭은 모두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 그대로 방치된 땅이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갈아엎음을 당하신 않는 옛 본성 그대로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 거듭나서... 자신의 전 존재가 부인당하고, 그 내면에 영적인 할례를 당하지 않는 자... 그래서 자기 교만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들어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2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목적을 35 절이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심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제자들에게

-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유 두 번째는, **이 천국비밀이 '저희'- 그 본성 그대로 내어 버려둔 자들- 에겐 비밀이 되어서 도데체 알아 들을 수 없도록 하시고, '너희' 제자들에게엔 하늘의 비밀을 폭로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며...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함으로 천국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와는 반대인 자들입니다.

**이들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11 절) 깨달도록 허락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 성경의 모습이다.** 성경은 중요한 진리가 비밀에 싸여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비유와 같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역사적 사실들과 윤리적 가르침 속에는 각각의 천국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엔 성경은 철저히 그 비밀을 숨깁니다. 반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된 자들은 성경 속에 은닉되어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 하늘의 신비

그렇다면, 너희(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천국 비밀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하늘의 신비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 예수님은 마 10:16 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있습니까? 17 절이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의인들은 예수를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통해 열리는 구원의 문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다, 그들이 듣고 싶어했던 것을 듣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바로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던 것,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말합니다.

- 골로세서1:26, 27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도 직접...

- 요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찰스 하지 목사도 성경신학에서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이 '모든 성경은 작은 부분까지 예수를 계시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 설교를 통해 드러나는 능력?

설교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이 은닉하고 있는...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그 하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성경을 통해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 성경의 은닉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어떤 일이 사람들 내면안에 역사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AD400 년경, 30 대 초반까지 성욕과 철학적 교만으로 평생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 이렇게 고백한다.

- '하나님께 반역한 그 모든 세월 동안 내 자유 의지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자유 의지는 대체 어느 감추어진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한순간에 나타나 나로 하여금 순순히 당신의 쉬운 멍에를 메게 한 것입니까?... 한 때는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했던 그 무익한 쾌락들이 내게서 갑자기 사라지다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요... 당신은 내게서 그 무익한 쾌락들을 몰아 내셨습니다. 참된 최고의 기쁨이신 주님. 당신은 그러한 것들을 내게서 몰아 내시고 그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혈과 육에는 기쁨이 되지 않으나 어떤 기쁨보다 감미로우신 주님. 어떤 빛보다 더 밝으나 우리 마음 속의 어떤 비밀보다 더 깊은 곳에 감추어지신 주님. 자신을 영예롭게 여기는 자들의 눈에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으나 모든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주님...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부요함, 나의 구원이시여.'

어거스틴은 자신이 즐겼던 모든 쾌락이 일순간에 사라질 정도의 최고의 기쁨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자신이 지금까지 집착했던 성적 쾌락과 그토록 자랑했던 자신의 학문적 유희를 한 순간에 몰아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빌 3:8) 라고 그 기쁨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설교를 통해 사람들이 경험하는 지상 최고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그저 '감정의 변화나 생각의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자신의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절대가치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죄에서 누렸던 쾌락이 일순간에 사라지도록 하는 지고의 기쁨을 발견하여 그것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영원불변의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인 예수를 입으로 보여주고, 청중들은 그것을 귀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국이 허락된 자들은 '최고의 기쁨되신 예수'를 보고 그들의 삶 전체를 내려놓고 그들의 새로운 주인 되신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설교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설교자가 누리는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설교자의 입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가 선포되는 그 공간과 그 시간에 심령에 들어가 역사하시는 것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설교자는 철저히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강단에 서야 할 것이며 그분의 도움심을 바래야 하는 것입니다.

### **문제제기= 허락되어 있는 자들에게 말하라**

설교자는 성경속에 은닉되어 있는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은혜로 제자들처럼 은혜로 자신이 부인당하고 성경의 모든 장과 절에서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 감추어진 비밀을 설교자가 말할 때, 이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된 자들만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이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은 들어도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이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망각하고 허락되지 않는 자들도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전하는 설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설교가 지루해서 교회를 떠날까봐... 그리고 '설교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들을 붙잡으려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깨닫을 때까지 쉬운 설교,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붙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을 붙잡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가 될 사람들을 붙잡고 싶으시다면, 알곡으로 교회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면, 허락되지 않는 자들이 알아듣는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법을 의지해서 오직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비밀을 드러내고자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참된 설교를 하면, 두 회중으로 극명하게 갈라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진리에 대한 반감을 가진 자들이 드러납니다. 반대로 참으로 회개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로 나뉘어 집니다. 이 양상은 시간이 지날 수록 더욱 분명해 질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돌을 맞고... 인격적인 공격과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격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고유한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 **숨겨진 하나님 나라를 보라**

성경의 역사는 가인의 계열들이 패권을 잡고, 그들 안에서 용사, 유명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높은 성을 쌓고, 큰 제국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통치합니다. 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은 그것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는, 먼저 온통



눈에 보이는 것과 부와 명예와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사는 이 세상 바벨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빌딩과 달리는 차량, 네온 사인과 웅장함.... 돈과 명예와 정욕과 성공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혼돈과 흑암의 역사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벨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두 세계 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보며 그 나라가 영원할 것임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진정한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혼잡이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사는 것이 흠어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는 믿음이 없다면, 바벨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교회 성장학을 따르면서 커져가는 교회와 동료들의 교회를 보면서... 조급한 마음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회심이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에 자신의 생애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성경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늘의 비밀되시는 예수를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들은 성공과 손에 잡히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믿음의 눈이 없으면 불안해서 그들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바벨속에서 홀로 덩그러니 놓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나의 삶과 목회가 다 끝이 난 것 같고, 절망속에서 내가 함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잘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 불안함과 염려가 생깁니다. (나만 바보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황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십시오. 거대한 혼잡의 세계에 가리어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의 저변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 복음 능력에 대한 확신

바울은

- 고전 2: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 고백이 설교자로 부름 받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설교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분의 구속의 아름다움을 전하는데 그 모든 주제가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성경만 제대로 연구하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는 드러나며 우리 앞에 있는 청중들은 그분의 위엄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있었던 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지상 최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바른 설교를 한다면 이런 역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앞에 펼쳐 질 것입니다.**

통회 자복하고... 말씀을 들으며 울며 회개하다가 졸도하는 참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매주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나의 주변에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은 오늘날은 그런 100년 전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고 불신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설교강단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 사역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사역에 성공(?)이 찾아 올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오직 성경'으로 교회가 생존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설교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면 된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다' 라는 확신 없습니다. 그래서 '열광적인 찬양집회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사람관리해야 하고, 특별활동을 해야 교회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 하나면 됩니다. **교회는 태초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장소고, 모일 장소입니다. 그들을 잡아두고 싶으시다면, 성경의 진리를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주는 것은 오직 이 성경의 진리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리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진리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닌 세상적 재미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두고 싶으시다면 성경의 진리만을 택하십시오. 반대로 교회 안에 불신자들로 가득하게 하려면 세상적 재미로 채워버리십시오. 그러면 교회에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 '저희'만 가득할 것입니다.

## 위로와 격려

마지막으로 이곳에 모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보다 더 유능한 설교자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쓰임받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펠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승리자로 만들고자 하실 때 항상 그를 먼저 박살내십니다.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보좌에 오르기 전에 그는 아둘람 굴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봉사나 더 높은 영적인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단련하실 때, 여러분을 내던지십니다. 여러분을 먹이기 전 배고픔 속에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입히시기 전에 벗기실 것입니다. 뭔가를 주시기 전에 여러분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내 던지시고, 낮추시고, 아둘람 굴을 거치게 하십니다. 요즘 개혁신의자 설교가들이 여러 사역지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선한 목회자들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포기과 실망에 직면한 설교자들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유능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이러한 인고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시면서.. 한 가지 중요하고도 뻘한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스피치의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유능한 설교자지만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은 결말이 좋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 역시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 없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탁월함은 오히려 패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축복하고자 하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크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굴속에서 드린 다윗의 기도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고로만 참된 교회와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으로 먹어버리는 수고가 필요하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존경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신의 남편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의 남편을 위대한 설교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저의 남편을 설교자이기전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가 어느 컨퍼런스에게 사회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저는 30년 동안 매일 아침, 매일 저녁에 기도했습니다.'

만약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설교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 기도하십시오.